

- 주요 뉴스: 연준의 통화 긴축 행보,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부진 불구 지속될 전망
 -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1~2회 금리인상 후 대차대조표 조정에 나설 필요
 - 바이든 대통령, 실업률 3%대 하락에 대해 경기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
 - 유로존 '21.12월 소비자물가, 전년동기대비 5% 상승하며 최고치 재경신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고용지표 혼조 불구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전망에 주목

주가 하락[-0.4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상승[+4bp]

 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 속 통화 긴축 경계감 유지
유로 Stoxx 600 지수는 역대 오미크론 확산,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-0.4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국 12월 비종업부문 신규고용 예상치 큰 폭 하회로 하락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0.2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상승
독일은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고치 경신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8.4원, -3.8원) 0.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/7일	1/6일	전일대비			1/7일	1/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77.0	4,696.1	-0.41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6%	1.72%	4bp
	유럽	486.25	488.16	-0.39%		독일	-0.04%	-0.06%	2bp
	중국	3,579.5	3,586.1	-0.18%	CDS 5y	한국	24bp	24bp	0bp
	일본	28,479	28,488	-0.03%		중국	43bp	44bp	-1bp
	한국	2,954.9	2,920.5	1.18%	위험 지표	EMBI+	-	394	-
환율	달러지수	95.74	96.23	-0.60%		VIX	18.76	19.61	-4.33%
	유로화	1.1360	1.1297	0.56%		WTI유	78.90	79.46	-0.70%
	엔화	115.56	115.83	0.23%	원자재	구리	441.0	435.4	1.27%
	위안화	6.3778	6.3830	0.08%		금	1,796.6	1,791.2	0.30%
	원화	1,201.5	1,201.0	-0.0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의 통화 긴축 행보,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부진 불구 지속될 전망

-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는 11월 24.9만명에서 12월 19.9만명으로 감소하고 시장 예상치인 44.7만명을 큰 폭 하회. 다만 12월 실업률은 3.9%로 전월대비 0.3%p 하락하고 예상치인 4.1%를 하회. 시간당 평균임금도 전월대비 0.6% 증가
-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부진은 노동력 부족과 계절조정에 따른 이형성(anomaly)을 반영한 결과.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되기 전인 12월 중순에 지표가 집계된 만큼 오미크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월에도 계속될 전망(Reuters)
- 12월 FOMC 의사록 발표 및 연준의 정책 정상화 가속화 전망 강화 이후 관심이 집중된 고용지표는 크게 호조를 보이지 않았으나,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제한적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연준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1~2회 금리인상 후 대차대조표 조정에 나설 필요

-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지난 긴축 기간보다 더 일찍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. 직전 긴축 기간에 연준은 '15.12월 첫 금리인상 후 '17.10월 양적 긴축을 시작
- 또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 8.8조 달러까지 도달했음을 지적하며, 1~2차례 금리인상 후 대차대조표 조정 가능성을 시사. 다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성급하게 공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

■ 바이든 대통령, 실업률 3%대 하락에 대해 경기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

-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 후 실업률이 3.9%로 하락해 3%대로 진입한 점에 대하여 경기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발언. 일자리가 예상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실업률 하락, 연간 일자리 증가에 더욱 주목
- 또한 작년 미국의 일자리는 640만개 증가하면서 전임 대통령들보다 1년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렸다고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완화, 공정경쟁 체계 강화 등 경제 구상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. 의회에는 2조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 처리를 촉구

■ 유로존 `21.12월 소비자물가, 전년동기대비 5% 상승하며 최고치 재경신

-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% 상승하면서 11월에 이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예상치인 4.7%를 상회. 물가상승을 주도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11월 2.6%에서 12월 2.7%로 상승하면서 ECB 물가목표를 상회
-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호조를 보이면서 그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과소 평가해 온 ECB의 고심도 커질 전망. 다만 ECB가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`22.3월 PEPP 종료 및 APP 확대를 결정한 만큼 3월 전 상당한 정책 기조 변화는 기대난(Reuters)

■ 미·일, 중국의 국제 질서 위반에 대해 우려 표명 및 공동 연구 진행에 합의

- 미국과 일본은 외교·국방장관 회담 이후 중국 신장 및 홍콩 내 인권 문제 등 중국이 규칙 기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우려 표명.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,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

■ 유로존 12월 경기체감지수, 115.3으로 예상치 하회하면서 경기회복 지연 우려

- 유로존 경기체감지수는 서비스 부문 전망이 크게 악화하고 고용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시장 예상치인 116.0을 소폭 하회. 같은 날 유로존 인플레이션의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, 독일 산업생산 부진 등도 가세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역내 경기 우려가 확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021년 12월 비농업취업자수 증가(만명): 19.9, 11월(24.9), 예상치(45.0)
- 미국 2021년 12월 실업률: 3.9%, 11월(4.2%), 예상치(4.1%)
- 미국 2021년 12월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(전월비): 0.6%, 11월(0.4%), 예상치(0.4%)
- 유로존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): 5.0%, 11월(4.9%), 예상치(4.8%)
- 유로존 2021년 12월 경기체감지수: 115.3, 11월(117.6), 예상치(116.0)
- 독일 2021년 11월 산업생산(전월비): -0.2%, 10월(2.8%), 예상치(1.0%)
- 일본 2021년 12월 도쿄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): 0.8%, 11월(0.5%), 예상치(0.7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29, E-mail skkim@kcif.or.kr